

성분헌혈자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변인

홍 경 희(가톨릭 대학교 성모병원 성분헌혈실)

박 호 란(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송 경 애(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목 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영문초록

I. 서론

혈소판 성분헌혈이란 혈액성분분리기를 이용하여 헌혈자의 혈액을 혈장, 혈소판 및 백혈구로 분리한 후 혈소판 성분만을 채집하고 나머지 성분은 다시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헌혈방법으로 1회에 1-2시간이 소요되는 시술이다. 혈소판 성분헌혈의 잇점은 한 공여자로부터 대량의 혈소판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이용되는 공여자 수가 적어 조직적합 항원에 대한 숙주의 감각회피가 적고 항혈소판 항체형성의 기회가 적어 계속 상호되는 추세이다(김상인 등, 1999).

그러나 채혈을 위해서는 신체적 고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오랜 유교적 관습으로 신체의 일부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혈액이 곧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전기순, 1998). 더욱이 혈소판 성분헌혈은 일반헌혈과 비교하여 헌혈시간이 길고 정서적, 신체적 부담감이 많으며 불편감이 높은 스트레스적 상황이다(Trouren-Trend et al, 1999 ; 배영이, 1999 ; 김희정, 1999).

따라서 혈소판 성분헌혈은 남을 돕고자하는 이타심 뿐 아니라 헌혈이라는 스트레스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헌혈자들은 헌혈에 대한 강한 의지가 존재하고(Gardner & Cacioppo, 1995) 헌혈자의 미주신경반응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도 반복헌혈자는 실신(syncope)에 대한 감수성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헌혈경험에 의해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획득한 집단으로 보고있다(Trouren-Trend et al, 1999).

자기효능감은 자아인식과 개인적 행동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여 개인이 특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이다(Bandura, 1977). 헌혈자를 관찰하고 돌보아야할 책임이 있으며 건강과 삶의 방식변화를 긍정적으로 도와주는 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간호사는 성분헌혈자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마련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하겠다.

한편 국내의 연구는 헌혈자의 지식과 태도에 대하여(김사라, 1977 ; 박명수, 1998 ; 구미숙, 1998 ; 전기순, 1999 ; 김희정, 1999) 진행되었을 뿐, 성분헌혈자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분헌혈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

감 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성분헌혈자들의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보다 차별화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 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II. 연구 방법

1. 대상

연구대상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일 대학병원에서 혈소판 성분헌혈을 시행하기위해 방문한 공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문장을 읽고 이해하며 기록이 가능하고 헌혈자의 선택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간호부, 1998)로서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자로 하였다.

2002년 4월 예비조사를 거쳐 2002년 5월에서 6월 사이 성분헌혈 지원자 전수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500명을 조사하였으며 자료가 불완전한 32명을 제외하고 46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방법

1) 도구

① 헌혈관련 자기효능감

Sherer와 Maddux(1982)의 자기효능감도구를 기초로 개발된 구체적 자기효능감측정도구(오복자, 1994)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간호학교수 2명과 성분헌혈실에서 근무하는 석사 이상 경력간호사 3명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도구는 8문항의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는 .85였다.

② 일반적 자기효능감

Sherer와 Maddux(1982)의 일반적 자기효능감도구를 오복자(1994)가 변안 수정한 것을 간호학교수 2명과 성분헌혈실에서 근무하는 석사 이상 경력간호사 3명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의 5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는 .87 였다.

2) 자료수집

조사자와 성분헌혈실 근무간호사가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헌혈전 15분 정도의 대기시간에 맞추어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t-test와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으며,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변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는 남자가 98.7%로 대다수였으며, 평균연령은 23.2±4.8 세이고 직업은 군인이 53.4%, 교육수준은 대학생 이상이 80.9% 였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haracteristics	N(%) / Mean±SD
Gender	Male	462(98.7)
	Female	6(1.3)
Age(yrs)		23.2±4.8
Job	High school student	11(2.4)
	Soldier	250(53.4)
	College student	104(22.2)
	Employee	75(16.0)
	Others	28(6.0)
Marital status	Single	430(91.9)
	Married	37(7.9)
	Others	1(0.2)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12(2.6)
	High school	77(16.5)
	College student	314(67.0)
	College	56(12.0)
Religion	Post graduate	9(1.9)
	Protestant	156(33.3)
	Catholic	55(11.8)
	Buddhism	71(15.2)
	Atheism	178(38.0)
	Others	8(1.7)

<Table 1> continued

Variables	Characteristics	N(%) / Mean±SD
Economic status	High	20(4.3)
	Middle	405(86.5)
	Low	43(9.2)
Previous times of whole blood donation	0-1	130(27.8)
	2-4	196(41.9)
	5≤	142(30.3)
Previous times of apheresis blood donation	0	267(57.1)
	1-3	161(34.4)
	4≤	40(8.5)
Relationship with recipient	Relation	121(25.9)
	No relation	347(74.1)
Motivation of donation*	To help patients' therapy	220(47.1)
	To help those who don't have any relationship	106(22.7)
	To help family and friends	52(11.1)
Sleeping time(hrs)		6.5±1.5
Height(cm)		174.8±5.1
Weight(kg)		69.3±8.5
Total		468(100.0)

* variable including no-answer

62.0%이었으며, 경제상태는 중정도로 답한 사람이 86.5% 였다.

일반헌혈 경험횟수는 2-4회가 41.9% 이었으며, 성

분헌혈 경험횟수는 0회가 57.1%이었다. 헌혈자의 환자나 환자가족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74.1%였으며, 성분헌혈의 동기는 '신선한 혈소판으로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가 47.1%였다.

평균수면시간은 6.5±1.5 시간, 평균신장은 174.8±5.1cm, 평균몸무게는 69.3±8.5 kg이었다 <Table 1>.

2. 자기효능감 정도

1) 헌혈관련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헌혈관련 자기효능감 정도는 총 평균 32.9±5.1 점이었으며 평균 평점 4.1 점으로 중간이상의 헌혈관련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문항별로 보면 '전의 헌혈경험에 미루어보아 나는 이번 헌혈도 성취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가 4.4±0.7 점, '나는 헌혈을 해 낼 나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가 4.4±0.7 점으로 점수가 높았다<Table 2>.

2) 일반적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정도는 총 평균이 37.9±5.5 점이었으며 평균 평점 3.8 점으로 중간이상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문항별로 보면 '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가 4.0±0.8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가

<Table 2> Mean score of self-efficacy related to donation

Items	Mean±SD (Min-Max: 1-5)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previous blood donation, I am sure that I will accomplish blood donation this time.	4.4±0.7
I will not convince about my ability to blood donation.	4.4±0.7
If someone asks me for blood donation, I'd like to avoid.	3±0.8
I am the person who have positive attitude and self-confidence about the blood donation.	4.1±1.0
I will assure if my meaningful people(family or expert) say to me that blood donation is safe.	4.0±0.9
When the unexpected situations occur during the blood-donation, I will not tolerate that situation.	3.9±0.9
When I think blood donation behavior to be difficult or anxious, I will avoid next blood donation.	3.9±1.1
When I think blood donation behavior to be hurt or disgusting, I will avoid next blood donation.	3.8±1.0
Total	32.9±5.1(4.1)

<Table 3> Mean score of general self-efficacy

Items	Mean±SD (Min-Max:1-5)
I am a confident person.	4.0±0.8
When I start something, even if difficult, I can endeavor until I can do it.	3.9±0.7
Even if something looks very hard, I endeavor to learn it.	3.9±0.7
Even if something is unpleasant, if important, I can do it until the end.	3.8±0.8
Even if something looks very complex, I endeavor to solve it.	3.8±0.7
I can handle most of problems very well in my life.	3.8±0.7
If I decide something to perform, I launch it at once.	3.7±0.8
If I decide some important goals, I can accomplish most of them.	3.7±0.7
I can deal effectively with unexpected events.	3.6±0.7
If I make plans, I can manage to perform them.	3.5±0.7
Total	37.9±5.5(3.8)

3.5±0.7 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3).

P=.0001). 또한 성분헌혈자가 환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F=1.90, P=.005) 높았다(Table 4).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헌혈 관련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헌혈 관련 자기효능감은 과거 일반헌혈 횟수와 과거 성분헌혈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일반헌혈 횟수 5회 이상군의 헌혈관련 자기효능감 점수는 22.5±3.0 점으로 일반헌혈 횟수 1회 이하군의 21.3±3.1 점보다 높았으며(F=32.11, P=.0001) 성분헌혈 경험 4회 이상군이 성분헌혈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11.20,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고등학생이 나머지 직업의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F=4.19, P=.002) 대졸 이상군이 39.3±5.2 점으로 고졸군 36.5±5.8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5.07, P=.006). 또한 과거 일반헌혈 횟수와 과거 성분헌혈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일반헌혈 횟수 5회 이상군의 일반

<Table 4> Mean score of self-efficacy related to donation by characteristics

Variables	Characteristics	Mean±SD	F / t	P
Gender	Male	22.1±3.8	0.08	.939
	Female	22.2±2.9		
Job	High school student	21.7±2.7	1.65	.160
	Soldier	22.1±3.1		
	College student	22.5±3.1		
	Employee	22.2±3.0		
	Others	20.9±4.2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	21.2±3.2	0.01	.991
	College student	22.2±3.1		
	College <	22.7±3.2		
Religion	Yes	22.1±3.1	-1.42	.155
	No	22.2±3.3		
Condition of residence	With parent	22.1±3.1	-1.04	.298
	Without parent	22.0±3.1		
Economic status	High	21.4±3.5	2.12	.110
	Mid	22.2±3.1		
	Low	21.8±3.6		
Previous times of whole blood donation	0-1	21.3±3.1a	32.11	.0001
	2-4	22.4±3.3b		
	5 ≤	22.5±3.0b		

<Table 4> Mean score of self-efficacy related to donation by characteristics

Variables	Characteristics	Mean±SD	F / t	P
Previous times of apheresis blood donation	0	20.8±2.4a	11.20	.0001
	1-3	22.0±3.0b		
	4≤	22.6±3.4b		
Sleeping hours	6≥	22.3±3.2	-1.33	.185
	6 <	21.9±3.2		
Relationship with recipient	Relation	22.4±2.8	1.90	.005
	No relation	22.0±3.1		

a,b : Scheffé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적 자기효능감 점수는 39.3±5.3 점으로 일반헌혈 횟수 1회 이하군의 36.4±5.3 점보다 높았으며(F=9.82, P=.0001) 성분헌혈 경험 4회 이상군이 성분헌혈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높았다(F=3.95, P=.019)<Table 5>.

4.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헌혈관련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헌혈관련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 상태, 학력과 과거 일반헌혈 횟수였다<Table 6>. 즉 결혼상태에서 결혼군의 헌혈관련 자기효능감이 미혼군보다 1.35정도 낮았으며 결혼상태의 기타군은 미혼군보다 6.49정도 더 높았다(미혼군을 기준으로 하였음). 또한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군을 기준으로 하여 대졸군의 헌혈관련 자기효능감이 0.87정도 더 높았으며 대

<Table 5> Mean score of general self-efficacy by characteristics

Variables	Characteristics	Mean±SD	F / t	P
Gender	Male	37.9±5.5	0.18	.854
	Female	37.5±4.6		
Job	High school student	31.6±7.3a	4.19	.002
	Soldier	38.3±5.5b		
	College student	37.6±5.3b		
	Employee	38.2±5.3b		
	Others	37.7±4.5b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36.5±5.8a	5.07	.006
	College student	38.0±5.4ab		
	College <	39.3±5.2b		
Religion	Yes	38.3±5.6	-1.93	.054
	No	37.3±5.4		
Condition of residence	With parent	37.7±5.6	1.13	.258
	Without parent	38.3±5.3		
Economic status	High	40.7±6.3	2.61	.074
	Mid	37.8±5.4		
	Low	37.6±5.7		
Previous times of whole blood donation	0-1	36.4±5.3a	9.82	.0001
	2-4	37.9±5.6b		
	5≤	39.3±5.3b		
Previous times of apheresis blood donation	0	37.9±5.6a	3.95	.019
	1-3	37.3±5.3a		
	4≤	40.0±5.4b		
Sleeping hours	6≥	37.7±5.3	-0.71	.476
	6 <	38.1±5.7		
Relationship with recipient	Relation	37.7±5.1	0.54	.587
	No relation	38.0±5.7		

a, b : Scheffé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self-efficacy related to donation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P
Intercept	21.9541	0.3571	61.460	.0001
Marital status				
Married	-1.3526	0.6083	2.223	.0267
Others	6.4932	3.0396	2.136	.0332
Educational level				
College student	0.8723	0.3704	2.355	.0189
Post college	2.2233	0.5333	4.169	.0001
Previous times of whole blood donation	-0.1185	0.0255	4.647	.0001

R² = .0961 P = .0001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general self-efficacy

Variables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P
Intercept	36.0997	1.2555	28.753	.0001
Age	0.0522	0.0550	0.950	.3427
Previous times of whole blood donation	0.1276	0.0494	2.581	.0102
Previous times of apheresis blood donation	0.0456	0.0299	1.524	.1283

R² = .0369 P = .0006

학원이상군은 고졸이하군에서보다 2.22 정도 더 높았다. 본 결과에서 결정계수가 0.096으로 작지만 모형의 유의성에 대한 검정결과 유의도가 0.0001로서 모형의 유의성이 있었다. 위의 모형을 식으로 정리하면 헌혈 관련 자기효능감 = 21.95 - 1.35 × 결혼군 + 6.49 × 결혼기타군 + 0.87 × 교육수준대졸군 + 2.22 × 교육수준 대학원이상군 - 0.12 × 이전헌혈경험회수와 같다.

2)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과거 일반헌혈 및 성분헌혈의 횟수와 성별이었다(Table 7).

아래의 모형의 결정계수는 0.0369로 매우 작은 값이지만 모형의 유의성에 대한 검정에서 F = 5.932(3, 464), 유의도 0.0006으로 유의한 결과이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회귀직선을 세울 수 있다. 즉 일반적 자기효능감 = 36.099 - 0.05 × 연령 + 0.13 × 일반헌혈경험회수 + 0.05 × 성분헌혈경험회수로 나타낼 수 있다.

IV. 논 의

최근 혈소판 헌혈은 혈액종양환자들에 대한 적극적

인 치료로 인해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김상돌, 1997 ; Glynn et al., 1998 ; 김상인 등, 1999), 한 명의 헌혈자에게서 대량의 혈소판을 얻음으로서 항혈소판 항체형성률이나 수혈매개질환 이환율이 낮아(Silver et al., 1991 ; Glynn et al., 1998) 계속 선호되는 추세이다.

혈소판 성분헌혈은 10분 정도 걸리는 일반헌혈과는 달리, 1-2시간의 시술동안 혈액이 분당 60-80ml의 속도로 몸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주입되고 항응고제인 ACD-A(acid citrate dextrose-adenine)을 사용함으로써 저칼슘혈증, 가슴 답답함, 불안함, 오한, 어지럼증, 구역과 구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김의경과 김동집, 1986) 또한 일반헌혈과 비교하여 높은 불편감을 느끼고(김희정, 1999) 시술동안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rouren-Trend et al., 1999). 따라서 혈소판 성분헌혈자는 헌혈을 하고자하는 이타적 동기 뿐만 아니라, 헌혈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하겠다.

본 연구의 성분헌혈자 성별특성을 보면 남자가 98.7%, 여자가 1.3%의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선 헌

혈 후 검사의 일반 헌혈과는 달리 선 검사 후 헌혈의 특성을 갖는 성분헌혈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혈색소 수치가 낮아 검사합격율이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의 성별 분포는 본 병원의 헌혈 지원자에 대한 일년간 통계결과 즉 남자 98.7%, 여자 1.3%의 결과와 일치하였다(성모병원, 2002).

본 연구 대상자가 군인이 53.4%, 대학생이 22.2%였는데 이는 성분헌혈자 대상의 연구에서 군인이 41.0%(김상돌, 1997), 36.4%(김희정, 1999)인 결과와 비슷하였으며, 헌혈대상자중 학생이 45.2%, 군인이 27.3%라는 적십자혈액원보고(2000)와 마찬가지로 헌혈대상자가 대부분이 학생과 군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일반헌혈 경험횟수 2-4회가 41.9%, 5회 이상이 30.3%로 반복헌혈비율이 높은 반면, 과거 성분헌혈 횟수는 0회가 57.1%로 가장 많아 재헌혈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분헌혈이 1-2시간 소요되는 시간적 불편감(김상돌, 1997 ; 홍숙임, 2000)과 지정헌혈로 인한 부담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배영이, 1999) 사료된다. 성분헌혈에 대한 동기는 '신선한 혈소판으로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가 47.1%,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돕고 싶어서'가 22.7%로 헌혈은 강한 이타심이 동기가 된다(나명숙, 1978 ; Gardner & Cacioppo, 1995)는 여러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본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확신에 대한 판단으로, 개인이 지각된 자기효능기대가 강할수록 개인의 노력이 좀 더 지속적이고 적극적일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Bandura, 1982). 또한 개인은 수행을 통한 완성의 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등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하고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주어진 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이끌어낸다고 하였다(Bandura, 1982).

본 연구에서 헌혈관련 자기효능감은 '헌혈행위가 아프고 꺼림직하다고 생각될 때, 나는 다음 헌혈하기를 꺼릴 것이다'와 '헌혈행위가 어렵고 불안하다고 생각될 때, 나는 다음 헌혈하기를 꺼릴 것이다'의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생리적 상태, 즉 불안과 혐오적 각성, 통증 등이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Bandura, 1982 ; 전경구와 김교현, 1992) 헌혈자

들의 불안감과 통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8점으로서, 복막투석환자 3.3점(김태희, 2001), 당뇨병 환자 2.6점(강병임, 2001)보다 높아 성분헌혈자들이 타 집단에 비해 일반적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건강한 사람들로 증명된 헌혈자들은 스스로 강인함을 증명하고자하는 자아이미지가 강하고(Royse & Doochin, 1995) 자신감과 건강함을 표현하고자하는 성향이 있다(전기순, 1999)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보겠다.

한편, 과거 일반헌혈횟수가 증가할수록 헌혈관련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는데, 이것은 완성의 경험이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일어나게 하며 반복적 성공을 통해 자기효능에 대한 기대가 증가됨을 보여준 결과라 본다. 즉 반복헌혈자일수록 선행 헌혈경험을 통하여 자신감을 획득한 것임을 시사한다. 첫 헌혈자들이 새로운 헌혈경험에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데 비해(Trouren-Trend et al., 1999 ; 홍숙임, 2000) 반복헌혈자들은 헌혈에 대한 지식이 높아 헌혈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며(김사라, 1977 ; 구미숙, 1998) 헌혈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는 것(Strauss, 2001)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회 헌혈자들 뿐 아니라 비헌혈자들에게도 실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던 반복헌혈자들의 경험과 느낌을 알려줌으로서 대리적 경험을 얻도록 하는 것도 헌혈이라는 특정상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또한 강력한 언어적 설득이 자기효능감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격려와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적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그만큼 성공가능성도 높아지므로(Bandura, 1982 ; 정비호, 2000) 성공적으로 헌혈을 수행한 초회 헌혈자들에게 칭찬과 자신감 부여는 대리적 경험과 더불어 효능감 향상에 효과적 중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고등학생이 다른 직업에 비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자아체제감과 갈등이 선명하게 지각되는 청소년 시기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Erikson, 1968)으로 사료된다.

Bandura(1982)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과달성을 한다고 하였고, Schunk(1983)는 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성과가 높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헌혈관련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일반적 자기효능감도 헌혈횟수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반복 헌혈자들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생활양식을 영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과 대졸 이상의 학력이 헌혈관련 자기효능감의 예측인자로 나타났는데, 대졸이상의 학력 집단에서의 반복 헌혈율이 대학생 미만의 집단보다 높았다는 Ownby 등(199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이는 건강교육과 의료적 정보의 접촉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분헌혈자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 간호중재와 헌혈시 동반되는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차별적인 간호중재방안이 모색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분헌혈자의 자기효능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성분헌혈자들의 자기효능감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002년 5월에서 6월 사이 서울 시내 일 대학병원에서 혈소판 성분헌혈을 시행하기 위해 방문한 46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헌혈관련 자기효능감 정도는 총 평균 32.9±5.1 점이었으며 평균 평점 4.1 점으로 중간이상의 헌혈관련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정도는 총 평균이 37.9±5.5 점이었으며 평균 평점 3.8 점으로 중간이상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헌혈관련 자기효능감은 과거 일반헌혈 횟수와 과거 성분헌혈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일반헌혈 횟수 5회 이상군의 헌혈관

련 자기효능감 점수가 일반헌혈 횟수 1회 이하군보다 높았으며, 성분헌혈 경험이 4회 이상군이 성분헌혈 경험이 없는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성분헌혈자가 환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과거 일반헌혈 횟수와 과거 성분헌혈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일반헌혈 횟수 5회 이상군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점수가 일반헌혈 횟수 1회 이하군보다 높았으며, 성분헌혈 경험 4회 이상군이 성분헌혈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높았다.

3. 헌혈 관련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상태, 학력, 과거 일반헌혈 횟수였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과거 일반헌혈과 성분헌혈 횟수와 연령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을 제언한다.

1. 성분헌혈자들의 특성에 맞는 자기효능감 증진교육 및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간호중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것을 제언한다.
2. 성분헌혈자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할 것을 제언한다.
3. 자기효능감을 생리학적 변수로 측정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배영이(1999). 혈소판 헌혈에 대한 지정 공여자의 부담감,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 박명수(1998). 헌혈자들의 헌혈과 수혈에 관한 태도 및 지식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간호부(2000). 혈액분반술 간

- 호, 서울: 현문사, 1998.
-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 Erikson, E.H.(199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ardner, W.L., Cacioppo, J.T.(1995). Multi-gallon blood donors : Why do they give?, Transfusion, 35, 795-798.
- Glynn, S.A., Schreiber, B.G., Bush, M.P., Kleinman, S.M., Williams, A.E., Nass, C. C., Ownby, H.E., & Smith, J.W.(1998). Demographic characteristics, unreported risk behaviors, and the prevalence and incidence of viral infections : a comparison of apheresis and whole-blood donors, Transfusion, 38, 350-358.
- 홍숙임(2000). 비디오테잎을 이용한 정보제공이 혈소판 공여자의 불안과 불편감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 전기순(1998). 헌혈자와 비 헌혈자의 헌혈에 관한 지식과 태도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경구, 김교현(199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경험 분석, 한국심리학회 '92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13-423.
- 정비호(2000). 청소년의 성패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병임(2001). 당뇨병 환자의 당뇨지식, 가족지지, 자기효능감과 자가간호행위간의 관계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김희정(1999). 혈소판 헌혈자와 전혈 헌혈자의 헌혈에 대한 불편감과 지식 및 태도비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상인, 조한익, 한규섭(1999). 수혈의학. 서울: 고려의학.
- 김사라(1997). 헌혈자의 헌혈에 관한 지식과 태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상돌(1997). 성분헌혈자가 혈소판 반출시 지각하는 불편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태희(2001). 복막투석환자의 지식, 가족지지, 자기효능감이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
- 김의경, 김동집(1986). 혈소판 반출시 공여자와 수혜자에게 나타난 임상적 문제, 대한혈학회지, 39(1), 395-404.
- 구미숙(1998). 일부 대학생들의 헌혈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나명숙(1978). 일부 도시지역 헌혈자의 동기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오복자(1994). 위암환자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 예측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 Ownby, H.E., Kong, F., Watanabe, K., Tu, Y., & Nass, C.C.(1999). Analysis of donor return behavior, Transfusion, 39, 1128-1135.
- Royse, D., Doochin, K.E.(1995). Multi-gallon blood donors : Who are they?, Transfusion, 35, 826-831.
- Schunk, D.H.(1983). Ability versus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 differential effects on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6), 848-856.
- Sherer, M., Maddux, J.E.(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51, 663-667.
- Silver, H., Lachman, M., Badon, S.(1991). The impact of patient education program on directed donations, Transfusion, 31, 518-520.
- Strauss, R.G.(2001). Blood donations, safety, and incentives, Transfusion, 41, 165-167.
- Trouern-Trend, J.J., Cable, R.G., Badon, S. J., Newman, B.H., & Popovsky, M.A. (1999). A case-controlled multicenter study of vasovagal reactions in blood donors : influence of sex, weight, blood pressure, and pulse, Transfusion, 39, 316-320.

ABSTRACT

The Self-efficacy and Critical Factors of Apheresis Blood-Donors

Hong, Kyong Hee(Apheresis Unit, St. Mary's Hospital, Seoul, Korea)

Park, Ho Ran(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hng, Kyeong Yae(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the base of nursing intervention that could help apheresis blood-donors to promote self-efficacy effectively by analyzing critical factors that influence on this.

The subjects recruited for the research were 468 persons who participated in platelet donation at a university hospital apheresis unit in Seoul.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between May and June, 2002 using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é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self-efficacy score on the questions related to blood donation was 32.9 ± 5.1 , indicating that blood donors have above the mean level of self-efficacy related to blood donation.
2. The self-efficacy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group of persons who have more than 5 times of experiences in blood donation than others who have only one experience.
3. The critical factors that influence self-efficacy related to donation were the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and previous experiences of whole blood donation, while the critical factor that influence on general self-efficacy was previous experiences of whole blood don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effective and organized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can promote the self-efficacy of apheresis blood-donors.

Key words : Apheresis blood-donors, Self-efficacy